



# 한여름밤의 산사 '선율장엄'

"동·동·두동·두동·동동동동..."  
한낮의 따가운 태양빛도 차츰 꼬리를 내리고, 실새없이 울어대는 매미소리와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여름을 신고 올 무렵, 웅장한 북소리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연풍리 보련산(寶蓮山) 깊은 골짜기를 휘감아 들었다.

"우주 법계 만물이 푸르름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울 수 있는 계절, 그 계절만큼이나 아름다운 진천 보탑사 산사음악회 지금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5월 산사음악회가 열린 보탑사에는 서울, 경기, 충남, 대전, 천안 등 각지에서 모여든 2000여명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어린이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저녁 모기때와 불나방마저도 산사 음악회를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보탑사 산사음악회는 지난해 성공적인 첫 공연 이후 진천군민 모두가 자랑으로 여기는 지역 문화행사가 됐다. 특히 이번 산사음악회는 진천군 태권도 공원 유치를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산사음악회로 타이틀이 정해져 정돈과 관심이 기대가 컸다.

동희스님과 제자들의 법파공연과 가수 이동원씨, 듀엣 폴다섯, 테너 박현준씨의 노래,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고전음악 연주, 삼선교원 합창단과 진천농고의 합창, 명창 신영희씨의 판소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성악가 정물스님의 독창무대였다.

"자비하신 부처님이 빛으로 내리시네...마음은 먹물 들이고...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맑고 고운 소프라노의 음색이 깊어가는 여름밤의 어둠을 가르자 "와!...영광, 영광..." 우레같은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고 곧바로 영광송으로 이어지자, 스님 성악가가 부르는 이색적인 '신아리랑'은 참석자 모두를 연주자로 만들어 주었다.

대전에서 두 아들과 함께 온 불자 정혜숙씨는 "은가득이 함께 부처님

## 진천 보탑사 음악회

범패...판소리...가곡  
2천여명 흥겨운 어깨춤



동희스님과 제자들의 법파공연.



영광송 '신아리랑'을 열창하는 성악가 정물스님.

께 경배드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문화공연까지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지난해에 이어 또 찾아왔다"면서 "아이들한테도 자연스럽게 불교적인 분위기를 접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말했다.

밤 11시, 마지막으로 진행된 하인 스님들의 수화노래공연.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 뿐 아니라, 눈뜨고 귀 열렸어도 번뇌와 미혹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 중생들에게 소리없는 가르침을 전하며 보탑사 산사음악회가 끝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산사음악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이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 저마다 개성이 다른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산사음악회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속초 신홍사가 지난해 10월 99관 관악스프와 연계해 산사음악회 형식으로 김영종의 바람소리공연을 가졌으며, 감계 금산사도 지난해 10월 개산 1400주년 기념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남양주 백현사도 지난해 9월 김교각 스님 추모 헌다례 및 시민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여는 등 사찰을 널리 알리고, 동시에 불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진천 보탑사를 비롯 서울 진관사가 98년부터 매년 가을 산사의 작은 음악회를 열어 신도들의 결속을 다지고 있으며, 서울 길상사도 99년부터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즈음해 결식아동과 함께 하는 갈상음악회를 추진하고 있다. 5월 미륵불 봉안 기념 산사음악회를 연 경기도 양평 갈일사도 양평군민을 비롯 불자들에게 미륵불 참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마다 산사음악회를 열 계획으로 있는 등 산사음악회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글=이은지 기자  
(ei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승과 속, 너와 내기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가 된 보탑사. 88년의 작은 우주였다.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 음악회 연 보탑사 주지 지광스님

"여러분, 내년에는 참아음악회를 열어 봅시다" 무대에 오른 주지 지광스님은 멋트러진 인사말로 불자들을 사로잡았다.

지난해 처음 음악회를 연 이후 "스님, 올해 산사음악회는 언제쯤 하나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묻는 불자와 지역민이 너무 많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사음악회를 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스님은 음악회 시작 직전까지 감마를 채우며 밀집 모자를 눌러쓰고, 음악회 준비하러 찾아오는 손님들 저녁식사 행기라 부주한 모습이었다. 사회를 맡은 이계진씨는 그런 스님을 "마음의 일두문을 활짝 열어 주신 분"이라고 표현했다.

스님은 "보탑사 산사음악회를 진천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추진할 것"이라면서 "불자뿐 아니라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산율이 울려 퍼지는 산사를 찾아 부처님과 인연 맺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팔순을 넘긴 수행사 청오스님(맨 오른쪽)과 칠보사 석주스님(오른쪽 두번째)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출연자들의 공연이 끝날 때마다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성철 대선사 기념 메달



『우리 곁에 다녀간 부처』  
성철 대선사 기념메달 보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참 뜻만 깨쳐도 우리는 이미  
큰스님과 함께 삼법인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 : 황동(순금도금) ■직경 : 80mm ■가격 : 5만원

■판매 : 인터넷 불교 특화점 마이불 ■게조 G 한국조폐공사

•전화: 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건강 잠자리로 바꿔주세요!!  
리빙스톤 "요람 침대" (맥반석, 옥 물침대)

낮에 최선을 다 하셨으니 이제 편안한 잠자리로 보약을 드십시오.

좋은 잠자리는 보약입니다.

건강한 잠자리에서 희망찬 인생이 시작됩니다.

- ▶ 최고의 안락함! 바로 그 침대
- ▶ 최고의 편안함! 바로 그 침대
- ▶ 최고의 쾌적함! 바로 그 침대



자재품 원적치신 BIO물침대

자재품 게르마늄 물침대



특징

- ① 잤역이 유아부터 수험생, 신혼부부, 노년층까지
- ②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뜨끈뜨끈하게...
- ③ 유해전자파, 수력파괴, 먼지기 공에서 완전 해방
- ④ 침대 바닥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 ⑤ www.kipa.org 특허기술장터, 클릭, 검색어 (돌출토침대)

실용신안 등록 (제188136) 상표등록출원 (제20-3104)

"요람침대" 이온침대에 얹어 그대로 사용 보로도 사용가능!

리빙스톤

본사 / A/S : 02)424-9427, 2203-7821